

2.2.5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스토리텔링 주제 예시

제안사가 제안하는 한양도성 타임머신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는 역사와 문화의 이야기로서 의미가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그 주제에 따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요소들을 찾아서 의미 기반의 시맨틱 데이터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본 사업 수행을 통해 이러한 주제의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3차원 데이터 모델과 700년 시간의 진행이 함께 묶인 4차원 세계에서 흥미롭게 탐구해 갈 수 있는 ‘한양 도성의 역사와 문화’ 디지털 콘텐츠로 재현하겠습니다.

Key W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기반으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간적 역사 이야기와 공간적 3차원 데이터 모델을 유기적으로 결합
-----------------	---

⇒ 권역별 스토리텔링 주제 발굴 예시

🌸 덕수궁 권역

1) 덕수궁의 탄생

<p>1463년(세조 9) 세조가 며느리 정빈(→소혜왕후→인수대비)을 위해 지어준 정빈궁이 덕수궁의 시초이다. 정빈은 남편 의경세자가 죽은 후(1457) 궁궐을 나와야 했는데, 세조가 거처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러나 정빈은 아들 성종이 왕이 되자 다시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정빈궁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 되었다. 그후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에서 돌아와(1593) 이 집에 머물면서 이곳은 정릉동(眞陵洞) 행궁(行宮)이라 불렀고, 왕이 거처하는 궁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p>
<p>📖 지식 노트: 조선_세조, 정빈, 소혜왕후, 인수대비, 의경세자, 월산대군, 조선_성종, 조선_선조, 정빈궁, 정릉동_행궁, 행궁</p>

1) 덕수궁을 거쳐간 임금들

<p>광해군은 정릉동 행궁에서 즉위하였고(1608), 그 후 이 곳을 '경운궁'이라 이름하였는데(1611), 인목대비를 이곳에 가두었을 때에는 '서궁'으로 낮추어 불렀다 (1618).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도 이 궁의 별당에서 즉위 하였다(1623). 영조는 선조들의 역사가 깃들인 이 궁궐의 궁호를 써서 걸게 하였으며, 경운궁에 대한 시를 짓기도 하였다. 아관파천 직후 고종이 이곳으로 환궁하고 황제로 즉위하였으며 여러 차례 중건하였다. 1904년에는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1907년 순종이 황위에 오르고 이름을 덕수궁으로 바꾸었다.</p>
<p>📖 지식 노트: 정릉동_행궁, 광해군, 경운궁, 인목대비, 인목대비_유폐, 서궁, 조선_인조, 옥새, 조선_영조, 고종황제, 아관파천, 러시아_공사관, 경운궁_화재, 순종황제, 덕수궁, 태황제</p>

3) 덕수궁 정관헌, 고종의 커피사랑

<p>덕수궁 정관헌은 침전인 함녕전과 편전인 덕흥전 뒤편 언덕에 위치하며, 고종의 휴식과 연회를 위해 지어진 장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당시 처음 맛본 커피를 정관헌에서도 마셨다고 전한다. 고종은 커피와 차를 마시며 손님을 접견하는 장소로 정관헌을 즐겨 찾았다고 한다. 이런 일화로 인해 정관헌은 카페를 연상시키는 서양식 건축물로 기억되고 있다.</p>
<p>📖 지식 노트: 덕수궁, 정관헌, 함녕전, 덕흥전, 러시아_공사관, 커피</p>

4) 덕수궁 숙옹재에서 창덕궁 능허정으로 가는 길 : 조선왕실의 장태의례(藏胎儀禮)

<p>1897년 9월 30일, 귀인 엄씨가 영친왕을 낳은 지 칠일째 되는 날, 장태중사 김규복을 선두로 48명으로 구성된 장태행렬이 숙옹재 산실(産室)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던 영친왕의 태(胎)를 모시고 숙옹재를 출발하여 창덕궁 능허정 남쪽 기슭에 가서 태실(胎室)을 조성하고 태를 안치하였다.</p>
<p>📖 지식 노트: 귀인_엄씨, 영친왕, 숙옹재, 산실, 태(胎), 김규복, 장태행렬, 창덕궁, 능허정, 태실</p>

5) 덕수궁의 정문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韓門)으로 변경한 이유

덕수궁 정문의 원래 이름은 대안문(大安門)이었다. 그런데 1906년 조선왕실은 문의 이름을 대한문(大韓門)으로 고쳤다. 여 일은 배정자(裴貞子)라는 이토 히로부미의 내연녀와 관련이 있다는 속설이 있다. 대한제국 황실은 친일분자였던, 배정자의 꼴을 보기 싫어 '가(家)' 자 아래에 '여(女)'자가 있는 '안(安)'자를 한(漢)자로 바꿨다는 것이다.

배정자는 1870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배지홍이 실각한 흥선대원군의 추종세력이란 이유로 사형 당한 후 1885년에 일본으로 보내졌다. 1887년 김옥균의 소개로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게 되었고,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일본의 특급 스파이 역할을 하였다고 전한다.

 지식 노트: 경운궁, 덕수궁, 대안문, 대한문, 배정자, 배지홍, 김옥균, 이토_히로부미

- 6) 증명전, 고종황제와 제국사절단의 오찬
- 7)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행사
- 8)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비각
- 9) 고종의 늦둥이 고명딸 덕혜옹주
- 10) 준명당, 황실 최초의 유치원
- 11) 숙옹재 유청문의 현초(懸草)와 숙옹재 대청에서 행한 권초제(捲草祭)
- 12) 중화전, 의왕과 영왕을 책봉하다. 1900년(광무 4) 『의왕영왕책봉의궤』
- 13) 중화전, 궁인 엄씨의 진봉(進封) 의식: 『순비책봉의궤』, 『(순비)진봉황귀비의궤』 1900년(광무 4)
- 14) 알렌과 알렌부인에게 보낸 근대식 연회 초청장, 문로표(門路票), 봉투(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15) 순비(엄씨)의 책봉
- 16) 영친왕 관례 때의 음식상과 찬품
- 17) 순종 즉위식
- 18) 황태자의 가례
- 19) 황태자비의 관례
- 20) 완흥군의 흥왕 책봉
- 21) 고종 7대조의 황제 추봉
- 22) 고종 7대조의 어진 모사
- 23) 고종황제의 어진과 황태자의 예진 모사
- 24) 황제의 지위를 깎아내리려 했던 일제
- 25) 고종황제 즉위 40주년과 망육 축하 진연
- 26) 고종황제의 오순 축하 진연
- 27) 명헌태후 칠순 진찬
- 28) 효정왕후의 국홀
- 29) 악수하는 예법으로의 변화
- 30) 연회석에서 서양식 식탁문화의 활용
- 31) 서양식 연회 물품
- 32) 연회 때의 전통음식과 서양음식
- 33) 에밀 부르다레의 전통공연 관람기
- 34) 궁정 연회 공연 때의 창작춤 남무(男舞)
- 35) 황제국 복식
- 36) 서양 복식의 수용
- 37) 명성황후의 혼전 경효전
- 38) 순명황후의 혼전 의효전
- 39) 장충단의 건립과 제향
- 40) 대한제국의 근대식 상징건물 석조전
- 41) 1904년의 경운궁 대화재
- 42) 경운궁의 중건
- 43) 을사늑약이 체결된 증명전

- 44) 석조전을 미술관으로 개조
- 45) 경운궁과 경희궁을 연결한 육교 무지개다리
- 46) 아관파천과 고종의 길
- 47) 김홍륙의 황제 독살 미수사건
- 48) 고종황제는 각종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 49) 고종의 비밀정보기관 제국익문사
- 50) 대한제국의 태극기
- 51) 우정총국의 설치와 우표 발행
- 52) 우표 도안에 채택된 국가 상징 문양
- 53) 새 화폐제도의 도입
- 54) 훈장 제도의 제정
- 55)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문양 오얏꽃
- 56) '마귀불'인 전등의 설치

정동거리 권역

1) 손탁호텔의 투숙객들

1902년 2층짜리 양관[서구식 호텔]으로 재 건축된 손탁호텔에는 1904년 러일전쟁 시 영국인 윈스턴 처칠이 런던 데일리 텔레그래프 특파원으로 만주로 가는 길에 투숙하였고, 러일전쟁 중 평양전투 현황을 최초로 취재해 화제를 모았던 잭 런던도 투숙했으며,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도 다녀가고, 영국인 버크(Bourke)[1909], 上海 주재 프랑스영사 라파에르[1909], 독일 陸軍大尉 헨치트(1909) 등도 투숙했다.

 지식 노트: 정동, 호텔, 손탁, 손탁빈관, 영빈관, 윈스턴 처칠, 잭 런던, 이토 히로부미, 루스벨트, 대통령, 앨리스, 버크(Bourke), 라파에르, 헨치트

2) 궁중 무희를 사랑한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

초대 공사와 3대 공사로 총 13년간 조선 프랑스 공사로 근무한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는 서양인으로 한국 고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체계적으로 가장 많이 수집한 사람이다. 플랑시는 조선-프랑스 수호조약 2주년을 맞아 사디 카르노 프랑스 대통령이 고종에게 보낸 선물인 프랑스산 살라미나 백자 꽃병을 가지고 왔다(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플랑시의 이력 중에는 궁중 무희(궁중 기생) 리진[리심(梨心)]과의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 이 스토리는 두편의 소설[『파리의 조선궁녀 리심』(김탁환, 2006, 민음사), 『리진(李眞)』(신경숙, 2007, 문학동네)]과 방송[『한국사 傳- 조선의 무희 파리의 연인이 되다, 리진', KBS, 2007], 연극[『리진(Lee Jin·李眞)』, 극단 유목민, 2020] 등으로 소개되었다.]

 지식 노트: 조선-프랑스 수호조약, 사디 카르노, 살라미나 백자 꽃병, 리진, 리심, 『파리의 조선궁녀 리심』, 『리진(李眞)』, 연극 '리진(Lee Jin·李眞)'

- 3) 대한제국 호위대장에 임명된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
- 4) 조선을 사랑한 언론인 베델
- 5) 손탁호텔을 장식한 서양물건
- 6) 정동의 공사관 거리
- 7) 고종의 아관파천
- 8)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Friedrich Treodor von Weber, 韋貝)
- 9) 미국 공사 딘스모어(Hugh A. Dinsmore, 丹時謨)
- 10) 영국 총영사 윌리엄 조지 애스턴(William George Aston, 阿須頓)
- 11) 미국 공주 앨리스의 한국관광
- 12) 정동이 서양인의 거주지로 선호된 이유
- 13) 미국이 한옥을 공사관으로 사용한 이유
- 14) 러시아공사관과 영국공사관의 규모 경쟁

- 15)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정동
- 16) 국고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의 발족
- 17) 미국 워싱턴을 모델로 한 도시개조사업
- 18) 1899년 전차의 개통
- 19) 모던뿌이의 산책
- 20) 배재학당의 설립
- 21) 조선에서 세운 근대 학교 동문학교와 육영공원
- 22) 이화학당의 설립
- 23) 고종의 교육입국과 관학 설립
- 24)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혜원(제중원)
- 25) 남대문 밖 복숭아골의 세브란스병원
- 26) 양기탁과 베델 등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
- 27) 1896년에 서재필 주필의 독립신문 창간
- 28)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 29) 최초의 신문 광고
- 30) 미국공사관은 미국이 2000불에 해외에서 처음 사 들인 땅
- 31) 대한제국 워싱턴 공사관은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사 들인 건물.
- 32) 1895년 완공된 영국공사관 건물과 가든 120년간 원형 유지.

환구단 권역

1) 고종의 황제즉위식

1897년 10월 12일 환구단에 도착한 고종은 하늘에 고제례를 행하였다. 고제례가 끝나자, 영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인솔하여 무릎 꿇고서 우렁찬 소리로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청하였다. 신하들이 고종을 부축하고 가서 금교의에 앉혔다. 이어서 곤룡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웠다. 자리로 돌아간 그들은 절을 하고 다시 올라가 옥보를 바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다. 즉위식이 끝난 후 경운궁의 태극전으로 돌아온 고종황제는 축하연을 개최하고, 신하들과 각국의 공사·영사의 축하를 받았다.

지식 노트: 환구단, 고종황제, 고제례, 심순택, 금교의, 곤룡포, 면류관, 태극전, 황궁우, 천지제사, 대한제국, 광무, 태행왕후, 황태자, 황태자비, 대한예전, 대례의궤, 황천상제, 황지기, 태복사, 장례원, 주전사, 인화문, 궁가, 김영목, 이법석, 조기하, 유원성, 김용규, 최규원, 유석, 이태두, 등극례, 조서, 하표

2) 환구단을 다시 세운 뜻

조선의 환구단은 세조 때에 폐지되었다. 천자가 아닌 제후국의 왕으로서 천제를 지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논의 때문이다. 그 뒤 고종이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황제국의 상징인 천지제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천명에 의해 천자가 된 황제가 제단을 만들어 제천의식을 행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소공동 해좌사향(亥坐巳向)에 길지를 정하고 제단을 쌓고서, 고종은 천지에 제사를 드리고 황제위에 오르게 되었다. 황천상제 신위는 제1층 북동쪽에서 남향하고, 황지기 신위는 북서쪽에서 남향하였다.

지식 노트: 조선 원구단, 세조, 천자, 제후, 남별궁, 남교, 제천단, 강화 참성단, 단군, 석교, 조선철도호텔, 대명야명, 북두칠성, 오성, 이십팔수, 주천성신, 운사, 우사, 풍백, 뇌사, 오악, 오진, 사해, 사독, 명산대천, 성황, 사토, 태조, 배천, 고려 원구단, 도관, 천황대제, 오방오제, 풍년기원제, 천원지방,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이근명

- 3) 환구단에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가?
- 4) 고종황제 즉위식 전날의 시가지 모습
- 5) 고종 황제즉위식 당시의 보물
- 6) 대례의궤에 수록된 반차도
- 7) 남대문과 함께 조선의 상징이 된 황궁우
- 8) 돌북의 쓰임새는 무엇이었나?
- 9) 환구단에 봉안된 대한제국의 신들
- 10) 조선 태조가 환구단에 배천된 까닭은?

- 11) 환구단을 차지한 조선호텔
- 12) 환구단의 제사의례



송례문(남대문) 권역

1) 송례문의 건립과 명칭에 얽힌 뜻

한양도성의 정문인 송례문은 1396년에 창건되었으며, 1448년에 개축하였다. 앞면 5칸, 옆면 2칸의 2층 건물이다. 문은 화강석의 무지개문이며, 우진각지붕에 상하층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다. 추녀마루에는 잡상과 용두를 두고, 양성한 용마루에는 취두를 두었다. 문의 명칭은 '송례'이다. 방위에 따라 적용한 오상 중, 남쪽에 해당하는 '예'자를 사용한 것이다. 예를 숭상한다는 뜻은 조선의 국가질서를 관통하는 예치(禮治)와 직결되는 말이다. 1934년에 일제가 '남대문'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재로 지정했다.

지식 노트: 송례문, 남대문, 국보1호, 편액, 양녕대군, 지붕유설, 사대문, 흥인지문, 동대문, 보물1호, 돈의문, 서대문, 창의문, 북대문, 숙정문, 홍지문, 관악산, 오행, 오방, 화(火), 오륜, 풍수지리, 주산, 북악산, 직청룡, 우백호, 남주작, 복현무, 사신, 안산, 남산, 낙산, 인왕산, 사산, 청계천, 수구, 조산

2) 경성유람 1번지 남대문

우리나라에 관광버스가 처음 나타난 시기는 1931년이다. 경성자동차조합장이면서 경성자동차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노무라 겐조가 1931년 6월부터 지금의 소공동 조선호텔 건너편에 본사를 두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16인승 유람버스는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1시에 출발하였는데 오전에는 서울역을 출발하여 남대문을 마주보며 첫 번째로 유람하는 코스를 가졌다. 그래서 서울 구경하였냐는 말을 남대문 보았느냐는 말로 대신하여 썼던 시절도 있었다.

지식 노트: 관광버스, 경성자동차주식회사, 노무라 겐조, 소공동, 유람버스, 남산, 장춘단, 창경원, 파고다공원, 한강, 조선은행,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경성운동장, 경성제대, 대학병원, 보신각, 창덕궁, 경복궁, 조선호텔

- 3) 송례문 현판의 글자가 세로쓰기로 된 까닭?
- 4) 개항기 서양인의 눈에 비친 남대문
- 5) 송례문의 벽이 헐려 무인도가 되었다.
- 6) 남대문이라는 호칭이 생긴 이유
- 7) 뼈아픈 방화 위에 송례문을 다시 세우다.
- 8) 국보 1호, 꼭 송례문이어야 하나요?



돈의문(서대문) 권역

지식 노트:

1) 돈의문의 명칭이 갖는 뜻

한양도성 사대문의 서쪽 큰 문이다. 서대문이라고도 한다. '돈의'는 의리를 돈독히 한다는 뜻이다. '의'는 각 방위에 적용된 오륜 중 하나로서 서쪽에 해당하며, 유교의 핵심 실천윤리를 문의 명칭으로 정함으로써 교화의 한 방책으로 삼았다. 1396년(태조 5)에 처음 세워졌으며, 풍수상의 결점으로 1413년에 폐쇄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서전문(西箭門)을 새로 지어 출입문으로 사용하였으며, 세종 때 서전문을 헐고 그 남쪽 언덕에 새 성문을 쌓고 돈의문이라 하였다. 숙종 때 다시 지었으며, 1915년 도로 확장을 핑계로 철거되었다.

지식 노트: 돈의문, 서대문, 소의문, 창의문, 홍예문, 우진각지붕, 취두, 용두, 잡상, 서전문, 새문, 새문안길, 최양선, 장의동문, 이숙번, 색문, 색문동, 새문안, 인덕궁, 경영고, 염덕기, 돈의문_현판

- 2) 경복궁의 팔에 해당하여 막았다고 하는데
- 3) 새로 만들었다는 서전문
- 4) 새문이라는 명칭의 유래
- 5) 서울의 관문, 서대문 정거장
- 6) 1899년 4월 전차 개통(서대문~청량리): 서울의 전차 운행은 동경보다 2년, 상해보다 9년 빨랐다.

- 7) 1차 경인선 개통(인천~노량진정거장,1899)과 경인선 연장(노량진역~서대문역, 1900)
- 8) 영은문과 무악재길: 청나라 가는길 - 조선에서 가장 넓은 길
- 9) 독립문 개막식, 배재학당 학생들의 합창 올려 퍼지다.

 서울역 권역

1) 서울역의 탄생

서울역의 처음 이름은 경성역이다. 1900년부터 1904년까지의 경성역은 경부·경인선의 종착역이었던 서대문역이며, 1904년에 서대문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이후 경성역이라는 이름은 한동안 쓰이지 않다가 1923년에 남대문역을 확장하고 새 역사를 지으면서 경성역으로 개칭하여 다시 쓰이게 되었다. 1947년에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역 이름도 서울역으로 바뀌었다. 건물은 도로면에서 볼 때 2층, 철로에서 볼 때 3층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며, 부분적으로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외관을 갖고 있어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지식 노트: 경성역, 서울역, 남대문역, 경부선, 경인선, 서대문역, 경성부, 서울특별시, 남대문시장, 만초천, 네오르네상스 양식, 대합실, 그릴, 티룸, 이상, 날개, 이발소, 조선관광협회_출장소, 루체른역, 서울역_준공도면, 서울역사박물관

- 2) 경성역과 남대문시장
- 3) 서울역의 건축양식
- 4)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 서울역 그릴
- 5) 최초의 기차